

[현장속보] 촛불 1주년 기념 집회 성사

노동과세계 | 승인 2009.05.02 18:54

[3신/23:30] 촛불투쟁 '시청, 명동 일대 격전'

이명박퇴진 외치는 촛불대오 무차별 연행...인간사냥 방불케해 105명 이상 강제폭력연행

촛불 1주년을 맞은 5월2일 서울 명동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한 시민이 경찰에게 목이 짓눌린채 연행되고 있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촛불 1주년을 맞아 서울시청과 명동 일대에서 "명박정권 퇴진!"을 외치던 시민들이 대거 연행됐다.

서울역에서 경찰 봉쇄를 뚫고 촛불 1년 촛불행동의 날 대회를 사수한 시민들이 시청 앞 서울광장과 명동 밀리오레 앞에서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다 최소한 105 명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집회 지역내에 있던 한 시민이 폭력적으로 연행되고 있고, 연행이 뜬해지자 기자앞에서 V포즈를 해보이는 경찰.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서울역에서 광화문으로 이동한 촛불시민들이 5월2일 광화문 사거리와 시청 앞에서 “독재타도, 명박퇴진”을 외치며 촛불정신을 계승해 이명박 정권을 퇴진하자고 시위를 벌였다.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하이 서울 페스티벌 2009’ 행사가 촛불시위로 인해 무산되자 경찰은 무장병력을 동원해 무차별 폭력연행을 일삼았다.

시청 앞 광장에서만 68명 시민들이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이어 명동 밀리오레 주변으로 이동한 시민, 네티즌, 청년학생들이 준비한 피켓을 들고 “명박 퇴진!”을 외치자 경찰은 수십 개 중대 병력을 동원해 시민들을 연행했다.



경찰의 폭력진압에 흥분한 일부 시민들이 돌을 던지고 있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시위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전경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명동에서만 2일 오후 11시20분 현재 37명이 연행됐다. 연행자 중에는 정신지체아, 청소년, 여성, 그리고 인도변에서 경찰 폭력에 항의하던 시민들도 다수 포함됐다. 연행된 시민 중 부상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의료지원단이 달려와 구급치료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마저 묵살했다.



"친구가 잡혀 갔어요" 촛불집회에 나왔다 친구들이 잡혀가자 학생들이 경찰에게 울며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경찰 지나친 폭력대응에 분개한 시민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경찰 지휘관은 "저 사람들도 다 체포해!"라며 시민들을 협박했다. 경찰은 밤 12시가 가까운 이 시각에도 계속해서 시민들을 체포하겠다고 강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민이 경찰에게 헤드락을 당한 채 끌려가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촛불 1주년을 맞은 2009년 5월2일 밤 늦은 시간까지 이명박 심판을 외치는 촛불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이 상의가 벗겨진 채로 경찰들에게 강제 연행되고 있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2신/20:25] 촛불대오 '세종로네거리 진출, 시청광장 장악 이명박퇴진 외쳐'

촛불항쟁 1주년을 맞아 5월2일 서울역에서 경찰 봉쇄를 뚫고 촛불 1년 촛불행동의 날 대회를 성사시킨 시민들이 오후 8시를 전후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다시 되찾았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열린 2일 오후 광화문 앞 도로에서 페스티벌 참가자와 촛불집회 참가자가 어울린 채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가 열린 서울광장에서 촛불시민들이 깃발을 흔들며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고 있다.사진=이명익 기자/노동과세계

시민들은 서울역 집회를 마치면서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다시 촛불을 들자”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역 해산과정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폭력적으로 연행되기도 했다.

오후 7시가 가까워지자 촛불시민들이 다시 시청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오늘 ‘HI SEOUL 페스티벌 2009’ 대회 관계로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 차량을 통제했다.

촛불시민들은 오랜만에 다시 촛불을 밝혀두고 “명박퇴진! 독재타도!”라며 국민 목소리를 냈다. 수천 명 시민들이 시청 앞 대로를 오가며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한 목소리로 촛불의 의미를 되새겼다.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가 무산되자 경찰의 강제진압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커널뉴스 임은성 기자(파란색 화살표 안)가 경찰들에게 밀려 넘어진 채 실신했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실신한 임은성 기자가 동료기자에게 업힌 채 서울광장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앰블런스에 실려가는 임은성 기자.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시민들은 'MB독재심판', '재벌방송은 한나라당방송', '내안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퇴진! 이명박정권!', '못참겠다 갈아엎자', '2MB OUT'라고 씌어진 피켓을 높이 들고 광화문 사거리와 서울 시청 앞을 오가는 가두시위를 펼쳤다.

용산참사 유가족들도 오늘(2일) 촛불 1주년에 함께 했다. '학살만행 이명박정권 타도하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철거민은 무죄다, 구속자를 석방하라'는 용산참사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도 많이 눈에 띄었다.

광화문 일대를 일사분란하게 오가며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 목소리에 어느덧 '하이 서울 페스티벌' 일환으로 마련된 사물놀이 팀 공연 소리가 파문허버리기도 했다. 지난해 촛불집회 때 늘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힘을 주던 촛불악대로 등장해 '임을 위한 행진곡'과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등을 연주하며 시민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오후 7시50분 경 날이 어두워지면서 시민들이 하나 둘씩 촛불을 밝혀들기 시작했다. 경찰이 시민들 틈을 침탈해 들어왔고, 이미 서울광장 안에 운집했던 촛불시민들이 일제히 "명박퇴진, 독재타도"를 외치기 시작했다. 오후 8시5분 경 시민 촛불깃발들이 공연무대에 오르자 "독재타도 명박퇴진!"을 외치는 촛불시민들 목소리가 더 커졌다.

경찰이 서울광장 안으로까지 달려 들어와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며 밖으로 밀어냈다. 오후 8시 25분 현재 서울 시청 반대편인 프라자호텔 쪽에 경찰 수백명이 도열했고, 시민들은 서울광장과 덕수궁 인근에 분산해 있다.



프라자호텔 앞에서 경찰들에게 연행되고 있는 한 시민.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한편 경찰은 촛불 1주년 기념대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경찰을 불러올렸다. 16개 중대 총 15,000여 명 전투경찰이 무장한 채 촛불집회를 차단했다. 오후 시간이 되면서 종로3가와 경복궁 일대에서부터 서울역 인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경찰들이 서울 전역을 점거했다.

저녁 8시 서울 시청광장, 이곳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5월2일 서울역 광장, 이곳에서 촛불1주년 기념집회를 경찰이 160개 중대 1만5천명의 병력을 풀어 원천봉쇄하자 노동자, 학생, 촛불시민 등이 가세해 원천봉쇄를 뚫고 집회를 성사시켰다. 오후 6시 기념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들은 일제히 세종로방향으로 이동했다.

시청 태평로부터 세종로네거리까지 서울시청이 주최하는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가 열렸고 집회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규모를 불려가며 '독재타도 명박퇴진'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중무장한 경찰병력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청계광장이나 세종로네거리를 넘어 청와대 방향 진출을 막기 위해 병력과 경찰차량을 이용해 바리케이드를 쳤다.

저녁 8시10분 현재 태평로를 가득 채운 촛불깃발들이 시청광장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경찰병력이 행진을 차단하자 어쩔 수 없이 밀려들어간 촛불대오는 끊임없이 '독재타도 명박퇴진'을 외치며 직접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시청광장에서 열리던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는 중단됐고 그 즉시 중무장 경찰병력이 뛰어 들어와 깃발을 빼앗는 등 무력을 행사한다. 시민들은 "평화집회 보장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며 경찰 행태를 비난한다.

저녁 8시15분을 넘겨 시청광장을 탈환한, 사회 각계각층이 연대한 2009 촛불대오는 작년 광장의 촛불을 기억하며 현장사수 투쟁에 들어갔다. 촛불대오와 경찰병력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독재타도, 명박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을 토끼몰이식으로 한구석에 몰아넣기도 한다.

시청광장 현장은 아비규환이다. 경찰 폭력에 놀라 비명을 지르는 어린 아이들, 폭력경찰 물러나라며 항의하는 시민들, 이명박 퇴진을 외치는 사람들이 시청광장 곳곳에서 격렬하게 저항 중이다. 촛불대오와 시민들이 촛불을 켜자 중무장한 경찰병력이 다시 시청광장을 침탈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방전, 그 중앙에 서있을 이명박 정권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시청현장=채근식)

[1신/18:40/5월2일] 경찰 원천봉쇄 뚫고 촛불 1주년 집회 성사

5월2일 노동자, 학생, 여성 등 반MB촛불 점화...이명박심판 투쟁열기 고조

“이명박정권 심판하자!”



2일 오후 촛불항쟁 1주년을 맞아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백기완소장, 문정현 신부등 범 시민단체 대표들이 시민들과 모여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촛불항쟁 1년을 맞은 5월2일 촛불시민들이 다시 모였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 단결과 저항을 통해 세상을 바꾸자고 결의했다.

애초 촛불 1주년 행사와 용산범국민대책위 추모제가 2일 예정됐으나 경찰이 집회 가능한 서울 일원 모든 장소에 대해 당일 오전시간 부터 1만여 명 이상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원천봉쇄했다. 결국 서울역에서 대회를 갖기로 최종 결정됐지만 경찰은 이마저도 허용치 않고 서울역광장 전역에 경찰력을 배치해 집회 개최를 차단했다.

서울역에 집결한 노동자, 시민, 학생, 네티즌들은 계엄을 방불케 하는 경찰 봉쇄를 뚫고 촛불 1주년을 기념한 촛불행동의 날 대회 현장사수 투쟁에 나섰다.

촛불항쟁 1주년에 앞서 출범한 촛불시민연석회의 한소정 공동대표가 시민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자기 소개에 이어 한 대표는 “오늘 이 공권력 탄압으로 촛불 1주년을 기념한 촛불행동의 날 행사를 약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을 떴고 “우리들의 민중가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자”며 촛불1주년 행사 시작을 선포했다.

시민들이 노래를 부르자 경찰이 사방에 침탈 움직임을 보였으나 시민들은 “폭력경찰 물러가라!”고 외치며 대회를 사수했다. 집회대 오는 현장 코앞까지 밀고 들어온 경찰병력과 몸싸움을 벌이며 밀어냈다. 그 과정에서 한소정 대표는 “촛불시민이 하나로 연대해서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는 날까지 함께 하자”고 역설했다.

맨 먼저 연단에 오른 백기완 선생은 “웬 이명박이 이렇게 많으냐?”며 “이명박이, 이명박이, 이명박이,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고 외치면서 강력히 규탄했다. 시민들도 따라 연호하며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명했다.

이어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문정현 신부, 권영국 변호사, 민주노총 최종진 본부장, 광주전남도청을 사수하고 있는 아고라 네티즌. 고 이상림 열사 며느리인 정영신 씨, 경제위기에 맞선 대학생공동행동 수진 단장,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등이 시민들을 향해 이명박 정권 실정과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연대통한 반이명박 총투쟁을 호소했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경찰은 무장한 전투경찰들을 동원해 침탈을 시도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에서는 항의하는 일부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최루액을 분사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태도에 강하게 항의하며 촛불집회 대회를 치러냈다.



경찰의 폭력진압에 항의하는 시민에게 경찰들이 캡사이신인 든 최류액을 분사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시민들은 도화지를 뜯어내 즉석에서 각종 펜으로 손팻말을 만들어 시위를 벌였다. “퇴진! 퇴진! MB퇴진!”, “촛불이 승리한다”, “명박이 잘못 찍어 국민이 개고생이다!”, “이명박정권 퇴진하라!”, “MB정권 OUT!”,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흔들며 이명박 정권을 규탄했다.

또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시민과 네티즌들은 용산참사 100일이 지났는데도 사태 해결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명박 정권을 비판했다. “국민을 죽이는 대통령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철거민을 살려내라!”, “용산참사 해결하라”, “철거민은 무죄다, 구속자를 석방하라!”라는 피켓도 눈에 띄었다.

촛불시민들은 MB악법 저지, 공안탄압 분쇄, 용산참사 해결을 비롯해 요구사항을 천명하고 “5천만 민중이 연대하여 세상을 바꾸자!”고 결의했다. 이날 오후 5시45분 촛불1주년기념 촛불행동의날 집회를 성사시킨 집회대오는 이어지는 저녁 7시 서울청계광장 촛불집회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현장=홍미리/이명익기자>



노동과세계 k11@nodong.org